



문서번호 : 만불 08-07-23

시행일자 : 2008. 8. 9

수 신 :

참 조 :

제 목 : 건국 60주년 기념 제1회 조상영가 천혼대재 행사 보도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만불산 만불사는 경북 영천에 소재한 사찰로 불교 명절 중 하나인 우란분절(백중)을 맞이하여 8월 9일(토) '만불사 제1회 조상영가 천혼대재'를 봉행합니다.
3. 이번 천혼대재는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 우란분절(백중) 천도재에서 나아가 모든 유주무주(有住無住) 고향을 천도하는 의식으로 치러집니다. 특히 이번 천도재에서는 8월 15일 건국 60주년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숨져간 호국영령, 순국선열, 전몰자, 민주화운동 희생자들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또한 인간에 의해 희생된 동식물들의 넋을 위로해, 생명 존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장도 함께 마련됩니다.
4. 이에 '만불사 제1회 조상영가 천혼대재'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귀사에 보도를 요청 합니다.

- 아 래 -

1. 행사명 : '만불사 제1회 조상영가 천혼대재'
2. 행사 일자 : 2008년 8월 9일(토) 17:00 ~ 24:00
3. 초청 장소 : 경북 영천 만불산 만불사

4. 행사 내용

가. 제1회 만불사 세미나 [8/9 13:00 ~ 16:00]

-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정병조 교수) 주관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를 주제.

나. 불·보살 및 역대 조사 다례재

다. 조상영가 천훈대재 (영산재).

- 1) 나라를 위해 숨겨간 호국영령, 순국선열, 전몰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 2) 조류독감(AI) 살처분 조류, 각종 실험동물, 환경오염으로 멸종한 동·식물 등 인간에 의해 희생된 각종 동·식물 영가.
- 3) 각종 사변, 사태, 참사로 희생된 영가.
- 4) 각종 자연재해로 희생된 영가.

라. 천훈대재 위패 인도 갠지스강 소대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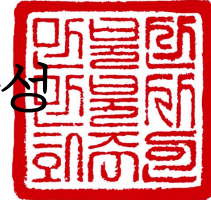
6. 문의

만불회 문화포교국 도한욱 과장 053) 217-0101, 011) 9595-9795

7. 별첨

가. 행사 안내문

만불산 만불사 주지 학성



< 보도자료 >

영천 만불산 만불사
‘제1회 조상영가 천혼대재’



만불산 만불사
www.manbulsa.org

(우) 770-881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산 46 / 대표전화 1600-0101

문의 : 도한욱 / 만불회 문화포교국 문화행사팀 · 과장

전화 ; 011-9595-9795 053) 217-0101(내선 111) 전자우편 ; dhanuk@hanmail.net

- 목 차 -

1. '제1회 조상영가 천혼대재' 개요 -----	3
2. 행사 일정표 -----	5
3.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 세미나 -----	6
1) 세미나 일정표 -----	7
2) 우란분절이란? -----	8
4. '조상영가 천혼대재' 헌시 -----	9
1) 지은이 소개 -----	10
2) 제불보살님 前 -----	11
3) 역대조사님 前 -----	12
4) 유주무주 조상영가 前 -----	13
5) 사변영가 前 -----	14
6) 사태영가 前 -----	15
7) 참사영가 前 -----	16
8)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가 前 -----	17
9)인간에 희생된 동식물 영가 前 -----	18
10) 살 처분 동물영가 前 -----	19
11)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영가 前 -----	20
5. '조상영가 천혼대재' 프로그램 소개 -----	21
6. 만불회는? -----	24

■ ‘제1회 조상영가 천혼대재’ 행사 개요

“모든 유주무주 고훈 극락왕생 기원”

‘무자비에서 자비로’ 주제 우란분절 천도재 봉행
민주영령 극락왕생 기원 … “영·호남 화합의 장”
AI·광우병 殺처분 동물 천도 … “보살행 실천”
역대조사 다례재, ‘生과 死’ 세미나, 영산재 공연

영천 만불산 만불사(주지 학성 스님)는 우란분절(백중)을 맞아 8월 9일(토) ~ 10일(일) 이틀간 ‘제1회 조상영가 천혼대재’를 봉행합니다.

‘무자비에서 자비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조상영가 천혼대재’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일반적인 우란분절 행사에서 한 걸음 나아가 모든 유주무주(有住無住) 고훈(孤魂)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만불사 대중은 천혼대재를 8월 15일 건국 60주년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숨겨간 호국영령, 순국선열, 전몰자,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승화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함으로써 이념과 지역갈등을 뛰어넘는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온갖 전쟁과 사변(事變), 사태(事態)의 와중에 희생된 영가, 종교와 이념의 갈등 속에서 희생된 영가가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력으로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이번 천혼대재에서 넋을 위로할 ‘유주무주 고훈’은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불산 대중들은 신약개발을 위해 실험용으로 사용된 동물, 조류독감(AI)·광우병 우

려 속에 무참히 땅에 묻힌 닭, 오리, 소, 미각이라는 욕망을 위해 희생된 가축, 인간의 환경 파괴로 소리 없이 사라져간 동·식물 등 사람을 위해 희생된 모든 생명들의 녀 또한 기릴 것입니다. ‘만불사 조상영가 천혼대재’는 이처럼 못 생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인류가 풍요롭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불사 대중은 앞으로도 우란분절을 부모와 조상영가를 비롯한 모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승보살도 실천의 날로 기릴 것입니다.

이밖에도 삶과 죽음의 의미를 통해 우란분절의 참 의미를 살펴보는 학술세미나가 ‘인간의 생과 사의 번뇌’를 주제로 열리고, 모든 불보살님과 역대 불교 조사들께 귀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공양하는 전통 헌다의식 ‘불보살 및 역대 조사 다례제’,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천혼대재에 동참한 불자와 유주무주 고힘들의 위패를 인도 갠지스강으로 모시고 가 소대의식을 갖습니다.

갠지스강은 인도인들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성지로, 이곳 강물로 목욕을 하면 온갖 죄와 허물이 없어져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문의

도한욱 / 만불회 문화포교국 문화행사팀 · 과장

전화 ; 011-9595-9795 053)217-0101(내선 111) 전자우편 ; dhanuk@hanmail.net

- 행사 일정표 -

시 간		프로그램
세미나	13:00 ~ 16:00	제1회 만불사 세미나
	16:00 ~ 17:20	휴식 및 다례재 행사장으로 이동
불보살 및 역대조사 다례재	16:50 ~ 17:00	공연 준비
	17:00 ~ 17:30	식전 행사
	17:20 ~ 17:30	회주 스님 / 스님 / 내빈 입장
	17:30 ~ 17:45	타종/삼귀의/만불회가/반야심경 봉송/행사 소개
	17:45 ~ 17:50	회주 스님 환영사
	17:50 ~ 18:00	축사 / 내빈 소개
	18:00 ~ 18:30	상단권공 / 천수바라 / 현악 / 현무 / 육법공양
	18:30 ~ 18:40	호국영령, 순국선열, 민주화운동 희생자, 인간에 의해 희생된 동·식물 등에 대한 헌시 낭독 및 묵념
	18:40 ~ 18:55	합창단 / 국악단 / 군악대 공연
	18:55 ~ 19:00	사홍서원
영산재 (천도재) 1부	19:00 ~ 21:00	삼신 이운 / 법사 이운
휴식	21:00 ~ 21:10	저녁 공양
영산재 (천도재) 2부	21:10 ~ 23:00	대령 - 바라춤 관육 상단불공 - 사라라니춤 법사 법문 중단 불공 - 승무춤 / 학춤 장엄염불 나무아미타불 정근
	23:00 ~ 24:00	법계도 돌기 / 소대 / 회향
철야정진	24:00 ~ 04:00	철야정진기도
새벽예불	04:30 ~ 05:30	새벽 예불 (동참신도 대중 참여)
도량참배/공양	05:30 ~ 09:00	도량 참배 및 아침공양 후 회향

※ 각 프로그램은 사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 세미나

“삶과 죽음의 불교적 의미 고찰”

한국불교연구원과 세미나 개최 ... 우란분절 현대적 의미 규명

영천 만불산 만불사(주지 학성 스님)는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과 함께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를 주제로 8월 9일 만불보전에서 ‘제1회 만불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반 대중에게 ‘조상을 천도하는 날’ 정도로만 치부돼온 우란분절(백중)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불교적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세미나는 3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제1 주제 ‘삶과 죽음의 번뇌 - 불교의 생사관’은 정병조 원장(동국대 교수)이 발표하며, 윤이흠 서울대 교수가 논평합니다. 제2 주제 ‘업과 윤회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 삶과 죽음의 윤리적 극복 가능성’은 허남결 동국대 교수가 발표하고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논평합니다. 또 제3 주제 ‘우란분절의 의미와 설행(設行) 역사’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발표하며, 석길암 금강대 교수가 논평합니다.

발표자들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우란분절을 계기로 죽음에 대한 관점이 해탈의 문제에서 구원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그것이 죽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불교적 관점에서 수용·발전시킨 것임을 규명할 것입니다.

만불사는 한국불교연구원과 함께 불교학 연구 성과를 사회적 현상을 통해 재조명하고, 이를 불자와 일반대중에게 회향하는 학술세미나를 매년 갖기로 했습니다.

■ 세미나 일정표

시간	일정	내용
13:00 ~ 13:20	개회식	개회사 :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
13:20 ~ 14:00	제1 주제발표 생사일여의 미학 - 죽음에 대한 불교적 통찰	발표 :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 논평 : 윤이흠 (서울대 교수)
14:00 ~ 14:40	제2 주제발표 윤회와 생존 - 삶에 대한 불교적 해석	발표 : 허남결 (동국대 교수) 논평 : 황순일 (동국대 교수)
14:40 ~ 15:20	제3 주제발표 우란분절의 의미와 역사	발표 : 김상영 (승가대 교수) 논평 : 석길암 (금강대 교수)
15:20 ~ 16:00	폐회식	맺음말 :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 사홍서원

※ 세미나 일정과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란분절이란?

지옥 떨어진 조상 영혼 구하는 날

우란분절은 불교에서 우란분재(盂蘭盆齋)를 지내는 날을 중국에서 명절화한 것이다. 우란분재는 여름 안거를 끝내고 자자(自恣)를 하는 날인 음력 7월 15일에 지옥에 떨어진 조상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올리는 재이다.

《목련경(目連經)》과 《우란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지금 살아 있는 부모나 7대의 죽은 부모를 위하여 자자를 끝내고 청정해진 스님들에게 밥 등의 음식과 5가지 과일, 향촉과 의복으로 공양하라고 하였다. 이는神通력으로 자기 어머니가 아귀(餓鬼) 지옥에서 고통 받는 모습을 본 목건련(目犍連)이 어머니의 구원을 부처에게 청원하여 비롯된 것이다. 이후 불가에서는 자자를 끝내는 날에 우란분재를 올리는 것이 전통이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양(梁) 나라 무제 때 동태사(東泰寺)에서 처음으로 우란분재를 지냈다고 하며, 그후 당나라 초기에 크게 성하다가 점차 민간풍습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행사는 불교가 동아시아적 심성과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을 해탈의 문제로부터 구원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며, 일반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불교적 관점에서 수용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상영가 천혼대재’ 헌시

茶禮와 薦度の 노래

고규태 / 시인

1. 제불보살님 前
2. 역대조사님 前
3. 유주무주 조상영가 前
4. 사변영가 前
5. 사태영가 前
6. 참사영가 前
7.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가 前
8. 인간에 희생된 동식물 영가 前
9. 살처분 동물영가 前
10.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영가 前

■ 지은이 소개

* 시인 고 규 태 (高圭兌)

- 1959년 전라남도 화순 출생
-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 1984년 시전문지 『민중시』 제1집 ‘신인’으로 시인 등단
- 1889년 시집 『겨울 111호 법정』 등 간행
- (사)한국작가회의 회원, 시분과 간사 역임

- 〈서산마애불〉 〈삼보일배의 노래〉 〈다시 동두천〉 〈회문산〉 〈나팔꽃의 노래〉
〈모처럼 향기롭습니다〉 〈화정동 노을〉 등 詩 200편 이상 발표

- 333행 장시 〈만불산〉 발표

- 5.18민주화운동 장시 〈들불7월사〉 발표

- 불교노래 〈삼경에 피는 꽃〉 〈천년와불〉 〈설산매화〉 〈무소의 뿔처럼〉 〈길〉
〈딩동댕〉 〈허공의 새여〉 등 다수 작사

- 환경노래 〈도요새〉 〈우리는 하나〉 〈갯벌사랑가〉 〈열목어 한 마리〉 〈나는
강이 되리니〉 〈아침노을〉 등 다수 작사

- 민주/통일노래 〈전진하는 오월〉 〈민주, 너를 부르마〉 〈뉘인 몸 뉘인 세월〉
〈하늘길〉 〈통일을 이루자〉 등 다수 작사

- 현, 10,000행 대작장시〈須彌山 萬佛山〉 집필중

- 「국민일보」 심의팀장, 기획팀장 역임
- 인동출판사 주간 및 대표이사 역임
- (사)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 기획본부장 역임

1.

제불보살님 前

이 자리 만불산 사부대중
이리도 산처럼 모여 일으키네 꽃
이루네 滿佛

산문의 용천수 유난히 맑고 푸르고
함께 님을 맞는 설레는 날에
저마다 몸과 마음 여미는 날에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아미타 약사여래…부처 부처님
문수 보현 관세음 지장…보살 보살님

다즉일체로 나투신 제불보살 님하

님은 마하, 크고 커서 그러할
님은 마하반야, 모남도 끝도 없어 그러할
님은 반야바라밀, 우리 저 언덕 가며 그러할

뜻이 그러하오매 오늘
예경 드리고 공양 올리오니 받으시라

그 가르침 되새겨 한 삶을 다짐하오니
앞생각과 행 어두웠으나
뒷생각과 행은 밝을지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자리행 이타행 걸림없이 행할지이다

남북은 평화로 통일로 영호남은 화합으로
전세계 유정무정 두루 껴안을지이다

2.

역대조사님 前

향기로워라 이 도량
소리 소리를 넘어 고요하여라 산

여기, 다례의 一心
萬心으로 받들어 님을 맞이하나니
다향은 저 수미산까지

하여 이 꽃장엄 만불산에
중중무진으로 오신 역대조사 님하
언어도단 불립문자로 오신 님하

님은 승-, 승은 법이요 법은 불
불은 나-, 나의 눈뚫이기에 나무 佛·法·僧

과한 욕심 그러한 따위 부질없음을
헛된 분별 그러한 따위 소용없음을
니탓 네탓 그러한 따위 쓸데없음을

그러하매 내가 스스로 눈을 뜨고
무자비에서 자비로 쾌히 나아가려네

하오나 역대조사님 한 말씀도 없으시네
우리를 향하여 다만,
할 !

이제부터는 우리도 삼독을 벗고
그렇게 그렇게 다만,
할 !

3.

유주무주 조상영가 前

모였다 흠어지는 건 구름
맺혔다 스러지는 건 이슬
육신 휘감은 중생의 길도 그러함에

한몸 받아 왔다가 가시었네
생노병사의 강물 흐르어
세간 인연 다함에 생사 나뉘었네

하온데 가다가 어디메
하온데 가다가 어이해 뒤를 돌아보시나
호호불호 이승의 정 그리 깊으신가

유주무주 조상영가여
제행은 무상 생자는 필멸
그 길에 아미타 아미타- 님이 계시니

귀의하여 무명업장 떨치시라

아미타 아미타 나무아미타불-
영가 위해 님의 명호 부르고 부르나니
번뇌 미련 모든 집착 다 놓으시라

공수거, 님의 손을 잡고 훨
공수거, 참회하여 청정 이루사 훨 훨
극락에 왕생하사 육도윤회 훨훨 벗어지이다

아미타 아미타 나무아미타불...

4.

사변영가 前

-호국영령, 순국선열, 전쟁 희생자

가로막는 칼산, 끊는 화탕 속으로
남 떠밀긴 쉬워도 내가 나서긴 어려운데

돌아보니 보이네, 흥망의 고비마다
한 몸 던져 나라 구하고자 한
호국 순국의 거룩한 자취 보이네

돌아보니 또한 보이네
自와 他, 我와 敵, 선부른 분별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징집 소집 동원되어

아, 6·25사변- 숨겨둔 400만의 숨결숨결
격전지 영천전투 포화 속의 남녀노소
57년 만에 드러난 경북 백자산 양민학살

찢긴 청춘의 강제징집, 종군위안부
귀무덤 코무덤의 임진년 백성들 보이네

못 잊혀 겨레의 산하를
못 잊어 피불이의 언저리를
근심 걱정으로 떠도는 영가들

빛나는 혼이여 애달픈 사변의 녀이여

이제는 나라 지킴도 평화 펼침도
산자들의 몫, 우리가 행할지니

영가여, 잊고 가시라 님의 등불 따라
가시어 극락원 이루시라

5.

사태영가 前

평화로이 수미산 바라보고 싶었으나
피로 물든 거리 거리

위쪽만 말고 나란히 잘 살자 했으나
총구 아래 쓰러진 목숨들

파아란 마음 갖고 순하게 살았으나
붉은 누명을 쓴 양민들

한 생각 헛 탐욕에 나라 하나가 먹잇감
오시는가, 티벳의 영가

한 생각 헛 분노에 제 백성이 피범벅
오시는가, 미얀마의 영가

한 생각 어리석음에 섬과 동네가 불바다
오시는가, 제주 4·3과 거창골 영가

나만 옳다는 神國들의 복수와 복수
겉 다르고 속 다른 洋國軍의 웅단 폭격
외면 속에 굶다가 돌아간 黑國들의 아사자

그러한 모든 영가 예 오시었으니
받으소서 우리들의 마음
풀어버리소서 그 원과 한을

오늘부터는 고운 님과의 동행길

극락 누리에 가시어
높게높게 다시 태어날지이다

6.

참사영가 前

달 가리켜 달을 보매 국경 없어라
중국 쓰촨성 지진 참사 속에
저 미얀마 싸이클론 속에
내 목숨 있어라

달 가리켜 달을 바라보매
대구지하철 참사와 경북 봉화 산사태 속에
인도네시아 해일과 일본 미국의
지진 홍수 속에 내 목숨이 있어라

뗏목 타고는 뗏목 버리매
我相 없어라 와르르 삼풍백화점 안에
화산 폭발 치솟는 용암 안에
와르르 저 성수대교 위에 내가 있어라

참사 참사 참혹한 참사
영가 영가 안쓰런 영가

한순간 별안간에 떠난 몸인지라
고별다운 고별도 못했느니
움켜쥔 집착도 놓을 겨를 없었느니

오늘 이 만불산에서
현향의 연기 따라 어여삐 고별할지이다
다 버리고 천도길 편히 떠날지이다

으깨진 육신 벗고 극락왕생 하실지이다

7.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가 前

꽃밭엔 아직 꽃이 들성들성
민이주가 되는 꽃밭은 허전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
조금은 보게 됐습니다, 4·19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의 귀
조금은 듣게 됐습니다, 광주 5.18 있었기에

부모가 자식의 장례를 치른 날들이여
젊은 아내가 더 젊은 아내를 장송한 날들이여

서로의 가슴 뜨겁게 느끼며
오해 털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영·호남이여

그래도 우리의 입
조금은 열렸습니다, 6월 항거 있었기에

비명횡사에서 의문사까지
밀실의 고문사에서 광장의 직격탄사까지

빛나간 권력의 탐진치에 맞서다
하나의 목숨 앗긴 여럿의 민주영령 위하여

향을 피웁니다
마음 모읍니다
산자들이 다시 촛불을 켭니다

하오니 부디 극락왕생
지지 않는 큰 꽃밭 찬란히 일구소서

8.

인간에 희생된 동식물 영가 前

주고 받았습니다, 그대의 것
뿌리면 뿌리 싹이면 싹 잎도 줄기도
공중의 열매 씨앗까지도

아니오 준 것은 없고
우리가 그대의 온몸 다 앗았습니다

주고 받았습니다, 그대의 것
토실한 살이면 살, 피면 피
물렁하면 물렁뼈 굳세면 굳센 뼈까지

달면 단 대로 안창살 토시살
쓰면 쓴 대로 쓸개까지

아니오 준 것은 없고
그대의 온몸 우리가 다 앗았습니다

내 힘 내 웃음 눈물에마저 그대 있어
흥와 樂 哀怒에마저 그대 있어
우리, 여기, 이렇게, 살고 있나니

이 산에 이르러 무심 거두고
그 고마움에 합장합니다
허리 굽힙니다

극락왕생 하시라
인간들이 모여 큰절 올립니다

9.

살처분 동물영가 前

당신-, 닭 오리 개 돼지 소 염소...
당신-, 금계 오골계 장끼 메추리 칠면조...

당신들은 숫자로만 잠시 나에게 왔다가
순식간에 생매장을 당했네

긴급 살처분, AI 의심 150,000 마리
또 살처분- 반경 500m 120,000 3km 263,000

포크레인과 구덩이, 하얀 포대자루로만 잠시
내 눈 스치다가 이내 잊혀져 갔네

108만 마리, 420만 마리, 1천만 마리

함께 묻히기 전
무정의 계란이 유정의 인간에게 묻더이다
이뭐꼬 이게 뭐꼬?

함께 죽어가기 전
오리 한 마리 오도송처럼 외치더이다
뉘탓 누구 탓 우리네 탓?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을 이유로
살처분당한 동물 영가여

당신님 탓 아니기에 고개 숙이나니
자연의 법 거스른 우리 인간들 탓이기에
부끄러움으로 참회의 향 사르나니

고이고이 극락왕생 하여지이다

10.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영가 前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의는 아니오나 실험의 이름으로 밤낮으로

연구의 명목으로 임상의 구실로 사계절
치료의 일편 예방의 수단으로 수년 수십년

축생이라 하여 미물이라 하여
그대들을 찌르고 자르고 가르고 토막내고
저미고 여미고 먹이고 굶기고

그제는 병 주고 어제는 약 주고
오늘은 어찌 됐나 관심을 주고
그리곤 싸늘히 식혀 내다버렸습니다

사람 대신 사람노릇 하다 제명 못 살고
깁니다, 쥐 토끼 개 원숭이 그리고 그리고

전생에 내 친구였을지도 모를
더 전생에 내 형제였을지도 모를
더더 전생에 우리 어머니였을지도 모를

동물영가들이여, 어서 오시어 공양 받으시라
고운 님 손잡고 극락왕생 꼭 그러하시라

만불산 사부대중 이리도 산처럼 모여
영가들께 오늘 이러이 천훈대재 올리나니

우란분절 맞아 일으키네 꽃 이루네 萬佛
도랑에 온누리에 화엄의 꽃 피어나네 *

■ ‘조상영가 천혼대재’ 프로그램 소개

1. 세미나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 주관으로 열립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를 주제로 삶[生]과 죽음[死]에 대한 이해와 천도재를 지내는 의미에 대해 학술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정병조 동국대 교수가 ‘생사일여의 미학 - 죽음에 대한 불교적 통찰’을, 우제선 동국대 교수가 ‘윤회와 생존 - 삶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우란분절의 의미와 역사’를 발표하고, 윤이흠 서울대 교수, 허남결 동국대 교수,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 논평합니다.

2. 불·보살 및 역대 조사 다례재

불자들의 귀의처인 불보살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온 역대 조사님들에게 귀의(歸依)와 존경,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양하는 의식입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석가모니불을 비롯한 모든 불보살님과 마하가섭 존자 등 서천(인도) 28조사, 중국 28조사, 한국 21조사께 다례를 올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청운다례원이 행사를 주관하며, 운문사승각대학 학감 일진 스님이 다례재를 진행합니다. 또한 고규태 시인이 헌시를 낭송합니다.

3. 영산재 (조상영가 천혼대재)

밀양 광제사 어산범패단의 시연으로 영산재가 봉행됩니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재현한다는 의미를 지닌 법회이자, 영산회상을 통해 영가를 발심시켜 부처님께 귀의시킴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천도의 식이기도 합니다. 만불사는 영산재를 돌아간 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호국영령, 민주영령, 전쟁·사태·사변의 와중에 희생된 영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로 희생된 영가, 인간에 희생된 동·식물 등 유정무정의 모든 영가들이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법석으로 확대해 애국, 애족, 애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는 법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천혼대재 봉행 대상

- 가. 조상 영가 - 백중기도 접수자들의 모든 조상 영가
- 나. 유자 영가 - 낙태 또는 유산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태아 영가
- 다. 호국 영령 -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숨져간 모든 영가와 순국선열
- 라. 민주 영령 - 4·19 의거, 광주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영가
- 마. 전쟁·사태·사변 희생 영가
 - 1) 전쟁 희생 영가 - 한국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쟁 때 희생된 영가
 - 2) 사변 희생 영가 - 을미사변 희생 영가 등 각종 사태 때 희생된 영가
 - 3) 사태 희생 영가 - 4.3사태, 티베트사태 등 각종 사태 때 희생된 영가 등
- 바. 참사 희생 영가 - 대구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성수대교 붕괴 참사, 대구가스폭발 참사, 대연각 화재 참사 등 각종 사건·사고로 희생된 영가
- 사. 자연재해 희생 영가 - 사라호 태풍, 미얀마 사이클론, 동남아시아 지진 해일, 중국 쓰촨성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로 희생된 영가
- 아. 인간에 희생된 동·식물 영가
 - 1) 실험용 동물 - 쥐, 토끼, 개, 원숭이 등 의학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
 - 2) 殺처분 동물 - 조류독감(AI), 광우병, 구제역 등으로 殺처분된 동물
 - 3) 멸종 동식물 -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로 죽거나 멸종된 동·식물

4. 천혼대재 위패 인도 갠지스강 소대 의식

천혼대재 위패를 인도 갠지스강으로 모시고 가 소대의식을 갖습니다. 갠지스강은 인도인들이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성지입니다. 이 강물에 목욕하면 모든 악업을 씻을 수 있으며, 죽은 이의 뼈를 흘려보내면 돌아간 이가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불사는 천혼대재에 동참한 영가와 모든 유주무주 고훈, 동·식물들의 위패를 갠지스강에

서 소대함으로써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들이 함께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탈 세계에 들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5. 삼사순례

천혼대재에 동참하는 전국 경향각지의 불자들을 위해 삼사순례를 봉행합니다. 삼사순례는 서울, 대전, 대구, 구미, 포항, 부산, 울산, 마산·창원 등에서 출발하며, 만불사 천혼대재에 동참한 뒤 지역별로 삼사순례를 합니다.

■ 만불회는?

1. 이념

만불회는 본질[理]과 현상[事]이 둘이 아닌 하나이며, 서로 걸림 없는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화엄사상(華嚴思想)’에 바탕을 두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만불회는 화엄사상에 근거해 ‘이상에도 걸림이 없고 현실에도 걸림이 없는[理事無礙 事事無礙]’ 신행 자세를 견지하며, ‘나도 이로우면서 남도 이로운[自利行 利他行]’ 실천행 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2. 목표

만불회는 ‘화엄만다라 인다라망(因陀羅網)’ 구축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인다라망은 제석천(因陀羅, Indra)의 궁전에 걸려 있는 보배그물(網)입니다. 이 그물에는 마디마다 구슬이 달려 있어 서로를 끝없이 비춘다고 합니다. 만불회는 이 인다라망처럼 차별과 대립을 넘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화엄불국토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만불회는 불교인들이 여법(如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과 공간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불교계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 역사

만불회는 1978년 회주 학성 스님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불교운동으로서 ‘만불운동’을 구상하면서 태동합니다. 1981년 만불보전에 모실 만불 부처님 권선을 시작한 만불회는 1987년과 1988년 대구, 부산, 서울에 포교원을 잇따라 개원하면서 전국적인 신행단체로 발돋움합니다. 1988년부터 만불산 건립을 위한 해외성지순례를 시작한 만불회는 1989년부터 전국 16개 도시에서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해 연인원 100만 명을 동원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큰스님 초청법회를 통해 만불운동의 인적 토대를 마

련한 만불회는 1991년 경북 영천군 북안면 고지리 일대에 10만평 부지를 확보해 만불산을 개산했습니다. 이듬해인 1992년 만불보전을 기공해 4년 만에 낙성했으며, 2000년에는 극락정토원을 개원했습니다. 1993년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해 진신사리를 모신 석탑을 건립한 것을 시작으로 아미타입불(1993), 석조관음보살입상(1994), 만불만석등탑(1994), 아미타영천대불(1999), 황동와불열반상(2000), 황동만불대법종(2001), 대웅전 삼존불(2005) 등 여러 성보를 조성해 불자들의 신행도량이자 원력도량으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6지역의 극락도량을 순차적으로 개원해 우리나라 장묘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4. 현황과 미래

만불회는 만불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체계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불운동을 통해 근본이념인 ‘이상에도 걸림이 없고 현실에도 걸림이 없으며(理事無礙 事事無礙) 나도 이로우면서 남도 이로운(自利行 利他行)’ 화엄사상을 실천해가는 단체가 만불회이며, 만불이념을 현실세계에 펼쳐 보이는 원력도량이 영천 만불산 만불사입니다. 또 대구에는 만불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본부가 있으며, 대구와 부산, 서울, 마산 등 각 지역에는 포교원을 두어 전국적인 포교·실천운동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장례문화를 이끌고 있는 재단법인 만불지장회와 불교문화사업을 담당할 재단법인 만불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만불신문사, 만불출판사, 만불TV MBS, BIC운영단, 다르마기획 등 문화사업을 통해 대중에게 만불이념과 정신을 알릴 문화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불회는 앞으로 영천 만불산 외에 안성 만불산과 전라 만불산을 개산해 3산의 위용을 갖추고, 기존 포교원 외에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제주, 춘천, 수원, 전주, 목포, 충주, 강릉, 청주, 구미 등 전국 18개 지역과 해외에 포교원을 추가 개설해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세계불교의 미래를 가꿔가는 불교단체로 발돋움해 갈 것입니다.